

표준사업장 확대와 촘촘한 지원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 -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23~'27)' 발표 -

정부는 대기업 등의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발달장애 비중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전통적 정책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의료법인과 관련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이번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장애인에게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연계고용을 국가·지자체·교육청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채용 전제로 직업훈련 시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장애인 고용저조 부문의 확실한 고용의무 준수를 위해 의무불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을 강화하고('23), '25년까지 의무고용률(3.1%)미만인 500인 이상 기업에 고용컨설팅 제공과 적합직무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사회 대비 장애인의 직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3개소인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25년까지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23, 6개소), 국내 최대 규모(1,000명)의 장애인 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도 '24년 개소한다.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전용 공공 훈련기관 신설도 검토한다.

고숙련 장애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 기사 수준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융복합 훈련직종을 '23년 20개까지 확대하고('22, 11개), 전국 19개 발달 훈련센터에 디지털 기초과정을 도입해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장애인 구직자 대상 취업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장애인 구직자 도약패키지를 신설해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학생·발달·정신·고령 등 대상별 특화서비스를 촘촘히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더 오래,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 장애인까지 확대한다('22, 3,850명 → '23, 15,000명, 4배↑).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유형·근무환경에 맞는 개인 맞춤형 기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내실화한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다른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의 취지를 담아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정책수단 외에 기업에게는 실질적 장애인 고용방법을 제시하고, 장애인은 새로운 분야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하였다.

※ 【붙임】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주요내용 인포그래픽

【별첨】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책임자	과 장	이부용 (044-202-7481)
		담당자	사무관	조은비 (044-202-7482)
담당 부서 <공동>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복지경제과	책임자	과 장	정 원 (044-215-8570)
		담당자	사무관	김 진 (044-215-8574)
담당 부서 <공동>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특수교육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선미 (044-203-6554)
		담당자	연구사	양무송 (044-203-6558)
담당 부서 <공동>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통합인사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수진 (044-201-8320)
		담당자	사무관	한승만 (044-201-8377)
담당 부서 <공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유식 044-202-4820
		담당자	사무관	문종훈 044-202-4826
담당 부서 <공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책임자	과 장	한영규 (044-202-3320)
		담당자	사무관	박영호 (044-202-3328)
담당 부서 <공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기업집단결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병건 (044-200-4932)
		담당자	사무관	김치열 (044-200-4936)
담당 부서 <공동>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광일 (02-2100-2680)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02-2100-2691)

- ✓ 대기업 등의 표준사업장 설립 참여 확대
- ✓ 국가·지자체·교육청에 연계고용 허용
- ✓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 추진

새로운 고용방법 확대 1

- ✓ 의무불이행 기업 명단공표 강화
- ✓ 의무고용률(3.1%) 미만 전체 대기업 컨설팅 확대
* '23년 50개소 → '25년 500개소
- ✓ 미래 유망 신직무 개발 확대
* '22년 144개 → '27년 360개

2 확실한 의무이행 지원

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늘고, 장애인의 새로운 분야 진출은 쉬워집니다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직업훈련· 취업서비스 강화 3

- ✓ 디지털 훈련센터 전국 확대
* '23년 6개소 → '25년 17개소
- ✓ 시각장애인 전용 훈련기관 신설 검토
- ✓ 통합이력관리 기반의 개인맞춤 취업지원

4 일하기 편한 일터 조성

- ✓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대상 확대
* '22년 3,850명 → '23년 15,000명
- ✓ 근로지원인 서비스 질 제고
-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내실화